

# 경계 뛰어넘는 '동시대 예술' 만난다

<Contemporary Art>

오는 9월 개관하는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엇갈릴 것 같다. "새롭고 흥미롭다. 낯설고 어렵다." 이런 관람평이 예상되는 것은 예술극장의 작품들이 어느 공연물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예술극장이 지향하는 '컨템포러리(Contemporary·동시대) 예술'이라는 키워드에 담겨 있다. 이 작품들은 오늘, 현재를 포괄하는 '동시대'를 바탕으로 연극·영화 등 예술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고 형식을 파괴한다. 예술극장이

컨템포러리를 주목하는 이유로는 기존 예술형식으로는 새로운 관객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예술극장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예술극장의 공연은 축제와 시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관 기념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9월에는 정기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며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시즌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극장은 개관 축제 작품 33편과 2015~2016 시즌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린다.

## 개관 페스티벌

9월 4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개관 페스티벌 공연작은 모두 33편으로 연극, 무용, 설치, 영상,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등 장르를 아우른다. 장르간 결합과 각국 작가들의 협업도 눈에 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대거 참여, 다양한 시선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 작가로는 이이남씨 등 3명이 선정됐다. 공연 공간은 아시아예술극장의 2개 공연장과 로비, 리허설 스튜디오 등 극장 공간과 함께 광주여고 체육관, 광주극장, 빛고을시민문화관, CGI센터 등으로 확장됐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아피차푼 위라세타쿤이 만든 첫 공연 작품 '열병의 방'은 관객들의 기대가 가장 높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동굴을 통해 영화와 연극의 근원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또 구전동화와 기억 속에서 출몰하는 호랑이의 발자취들을 모티프로 한 싱가포르 호추니엔의 시각 연극 '만 마리의 호랑이'도 눈길을 끈다.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 체제하의 실존인물인 페드로 동곡을 모티프로 영웅이 재조되고 정치화되는 과정에 질문을 던지는 연극·영상 작품 '그의 죽음은 의문스럽다'도 흥미롭다.

대만 감독 차이밍량은 3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당나라 승려 현장의 행보를 좇는 연극 '당나라 승려'는 인생의 덧없음을 함축하는 협소한 무대 공간에서 차이밍량 감독의 '페르소나'인 배우 이강성이 연기한다. 또 참여형 영상 설치 작품인 '떠돌이 개 in 광주', '차이밍량의 영화관'을 선보인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서현석과 함께 미디어와 연극이 결합된 '이이남 : 세컨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예술극장(www.asianartstheatre.org)에서 티켓 구매도 가능하다.

## 2015~2016 시즌 프로그램

시즌 프로그램은 10월부터 2016년 5월 까지 모두 10개 작품이 상연된다. 시즌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 세계적 거장을 초대하는 '아쉬워 마스터(Our Master)' 행사와 아시아의 문화를 집중 소개하는 '아시아 윈

## 글 쓰는 순서

- 1 예술극장
- 2 어린이 문화원
- 3 문화창조원
- 4 문화정보원
- 5 민주평화교류원

## 제작 중심 공연예술 허브

## 축제·시즌 프로그램 구성

## 낯설지만 흥미로운 작품

## 개관작, 축제 33편 등 43편

도우(Asia Window) 행사로 나누어 꾸며진다. 첫 아쉬워 마스터 행사의 기획자는 유럽의 권위있는 문화예술 부문상인 에라스무스상을 수상한 벨기에 큐레이터 프리 라이젠이다. 라이젠은 당초 예술극장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선정됐다 건강 상의 이유로 물러난 후 이번에 마스터 행사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다.

라이젠은 국제 공연예술의 혁신에 기여한 투사적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부터 안트베르펜 데 싱켈 극장의 창립감독으로 활동했으며, 1992년 브뤼셀에서 콘스텐아트페스티벌을 창립해 2006년까지 이끌면서 이를 국제예술계가 주목하는 행사의 위상으로 끌어올렸다.

라이젠 씨가 기획한 10월 첫 행사는 필립 글래스와 로버트 윌슨의 4막 오페라인 '해변의 아인슈타인'이다. 1976년 초연된 작품으로, 당시 기존 관습과 규칙을 뛰어넘는 혁신적 연출이 눈길을 끌었으며 여전히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11월에는 팀 에헬스의 퍼포먼스 '더티 워크'와 '마지막 탐험'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내년 3월에는 크리스토프 마탈라의 음악극 '데사 블룸슈테트는 포기하지 않는다' 5월에는 히지카타 다스미의 '부도 프로젝트'와 윌리엄 켄트리지의 '율리시즈의 귀환'이 예정됐다. '아시아 윈도우' 첫 행사는 5인의 기획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담론화를 시도하며 관객들과 만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작

가 겸 큐레이터인 헬리 미나르티, 중국의 요우미,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하는 라야 마틴,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타렉 아부 엘 페투, 한국의 음악감독 장영규 씨가 기획을 맡았다. 이들은 '응시, 투영, 신화'를 주제로 한 미나르티의 10월 전시에 이어 내년 3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전시에 나선다. 예술극장 티켓 예매는 홈페이지(www.asianartstheatre.org), 이메일(at-ticket@iacd.kr), 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 다국적 작가 협업 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공간이다. 1120석 규모의 '극장 1'과 512석 규모의 '극장 2' 두 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극장 1은 실내 좌석수가 1120석이고, 야외 객석은 600석(야외 무대 계단식 좌석)이다.

극장 1은 객석을 바다에 수납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최대 16가지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可變)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객석 좌석 배치 등이 자유롭게 설계돼 10여개의 패턴으로 무대를 바꿀 수 있다. 극장 1에는 대형 유리커튼이 설치돼 있어 이를 개방하면 실내외 복합 공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극장 2는 520석을 갖춘 소규모 공연장이다.

아시아예술극장의 핵심 운영목표는 '제작 중심의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의 허브(hub)'. 즉,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창작,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기관들과 제작비를 공동 출자해 작품의 유통 기회를 확보하는 공동제작 방식을 채택했다.

개관 페스티벌 참가작인 호추니엔의 '만 마리의 호랑이'가 이런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 작품은 예술극장과 싱가포르 예술플라네이드, 시드니 캐리저웍스, 비엔나 페스티벌이 공동 출자·제작했다. 이런 방식을 택한 덕분에 '만 마리의 호랑이'는 네 곳의 공동제작 기관에서 1차 공연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는 9월4일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원안). 예술극장 무대에 올릴지 이이남 작 '이이남 : 세컨드 에디션', 브렛 베일리 작 '맥베스', 중국국립극원의 '홍둥기'(시계 방향).

## “창작-유통시스템 적용 최초의 예술극장 만들 것”

### 김성희 예술감독 인터뷰

“한국은 물론 아시아 관객들이 찾는 공간, 차세대 아시아 예술가를 발굴하는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김성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예술감독은 2일 “아시아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이 이미 많이 있지만, 아시아 아티스트를 위한 창작-유통시스템을 지향하는 공간은 예술극장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술극장이 어느 문화공간과 다른 점은?  
▲예술극장은 제작 중심의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허브(Hub)를 지향한다. 예술극장은 지난 세기 서구만 바라봤던 아시아의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 서로 바라보고 공유하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역사를 쓰는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오늘의 스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아시아 스타를 지원한다.



-컨템포러리 예술이 난해하다.  
▲컨템포러리 예술은 현재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관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동시대 예술이다. 이를 통해 동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예술이다. 우리는 친숙하지 않은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알 수 없는 세계를 모험하는 즐거움은 또 다른 영감을 줄 것이다.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으로 중국의 전통 경극과 서구의 오페라를 접목시켜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시킨 중국 국립극원의 '홍둥기'를 꼽고 싶다. 연극보다 더 연극적인 사회를 꼬집는 리카르도 바르티스의 '바보기계', 풍고의 현실을 맥베스 오페라에 투영시켜 표현한 '맥베스'도 있다. 아시아 예술가들의 시각이 반영된 작품으로 근대 식민 아시아의 역사를 재고하는 호추니엔의 '만 마리의 호

랑이'도 추천작이다.  
-예술극장의 창·제작에 광주예술인들의 참여가 적은 것 같다.  
▲우선 개관 페스티벌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 연출가 팀 에헬스와 광주 어린이 10명이 공동작업한 '밤이 낮이 된다는 것'도 제작되고 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주의 지역 아티스트의 작품 4개를 공모하여 제작하고 있다.

-예술극장 운영방안은?  
▲광주에서 동시대 예술관객을 창출해 내지 않는다면 예술극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예술극장의 미래는 우선 광주에서 동시대예술의 관객을 창출해 내는 것이라 믿고 있으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극장 관객은 광주, 한국, 아시아, 국제 관객을 아울러야 한다. 또 예술극장이 제작극장이기 때문에 예술극장에서 제작된 작품을 세계에 소개해 줄 전문가 집단인 예술극장을 찾게할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담배 신제품 가격 공고

# NEW

# 던힐 파인컷 마스터

• 판매 개시일 : 8월 3일

• 소비자 가격 : 5,000원

제품명	타르	니코틴	포장구분	포장단위	규격
던힐 파인컷 마스터 3MG	3.0mg	0.30mg	하드팩	20개비	99mm
던힐 파인컷 마스터 1MG	1.0mg	0.10mg	하드팩	20개비	99mm

이 공고는 담배사업법 제18조 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2항, 3항에 의거한 제조 담배의 판매가격 공고입니다.